

... 우리의 目標 ...

- 1 在日僑胞의救靈
- 2 祖国統一의實現
- 3 韓・日兩國의和解

人間이란 무엇인가!

— 自我形成의努力 — (1)

성경은 인간을 이땅에 잠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으로 기록하고있다 <히11:13> 따라서 인간일생을 행인 항로등에 비하여 여러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를 다시한번 반성하여 뜻있는 인간으로 살도록함이 좋을 것같이 생각되는 것이다.

우선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할 것인데 옛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표현으로 설명해왔다 따라서 가장 잘 연구된 것같기도 하나 아직도 연구미비한 존재로 된것 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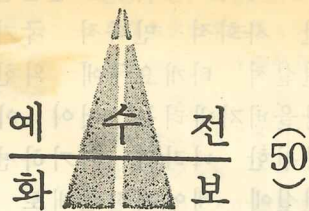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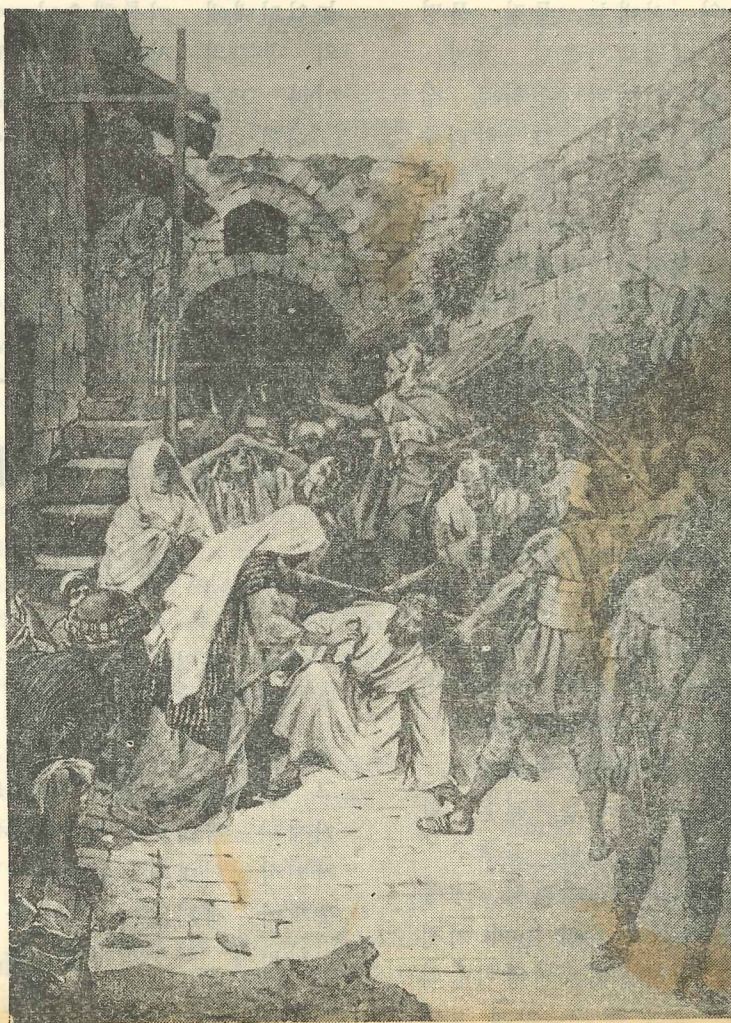
어떤 분들은 인간이란 단지 물체에 불과하다고했고 혹은 육체와 그이상의 혼합이라고도 했고 혹은 끝없이 진보발달하는 존재라고도 했으며 만족할줄 모르는 욕망을 갖고 고민하다가 죽어버리는 가공한 존재라고도 했는데 혹자들은 그럴지

라도 인간이란것은 유일무이한 존재인즉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참된존재로써의 자기를 찾아 그것을 바로잡아 보아야한다고 하는전해도

있다. 이런 설명들은 결국 인간이란 것이 다각적인존재라는 것을알려주는 것이다

여기에 기독교의 인간관은 어떤 것이냐하면그것이 간단히 대답될 것이 아니다 그이유는 예수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고는 알아낼수 없는 설명이기때문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란 무엇이나 하는 고정된 해설같은 것이 없다 거기에는 인간 하나 하나의모습에 결의를 말한것뿐이다 그것을 정리하려면 기독교 진리부터 정리해야 하게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를 읽으면 그 서두에인간은 맨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계획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부분에 속하여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온갖 준비를 다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다는것이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중에서도 인간이란것은 존중의 의도에서 지으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인 것이다. 따라서 소홀히 할수 없는 존재라는것을 알아야 하겠다. (羅)



이 그림은 누가복음에 의한 예수께서 자기의달릴 십자기를 지고 걸어 가시는 골고다의 길의 모습이다 (눅 23: 26~)

예수께서는 간밤의 심한 문초를 받으시고 피곤하게 골고다의 언덕길을 쉬히 걸을수 없을정도였다. 그래서 가끔 쓰러지기도 했다. 그때

마다 로마의 병정들의 채찍이 날려들고 서릿발보다 사나운 호령이 정기를 잃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귀에는 그 보다 자기 뒤에따라오면서 우는 예루살렘여자들의 우름소리가 컸고 그의 마음은 그들을 불상이 여기는 측은한 생각에 찼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울라고 하셨다

오늘의 인간들아 예수의 가르침이 소멸됨소나 자기죄를통회하고 울지이다.

人間回復의 原理는 教會에 있다

社会奉仕의 先行規律을体得하자

성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땅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것이아니고 천국에 속한 것이 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청년들 중에서는 사회인이 되면 교회에 출석을 드물게 할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봉사도 체휼리하는사람이 적지 않다 오히려 사회봉사에 열심을내어 직위 명예를 얻는 일에 관심이 깊어져 가는 경향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위험한

교회생활이다 여기서 반성과 아울러 교회생활의 근본 원리적인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즉 교회에 사는자들은 교회에 잘 출석해야 한다. 거기서 교회의 바른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를 중심한 봉사의 생활을 하게 될것이다.

교회에 사는자는 교회규율에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같은 믿음의 무리를 위로하며 신령한 교제를하여 거듭난인간으로 인간회복의 새생활을 체득해야 한다는점에 이르기까지에는 계속적인 자기모순과 싸우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 만 사회적 활동이활발 건전할 수 있는 것이다. <金元治>

各教會消息

△ 下関교회에서는 三月二十四일부터 二十七일까지四일

간 주일학교와 청년회간부 양성강좌를 개최했다

△ 宇部교회에서는 김득삼 목사를 피시고 三月十九일부터 三일간 특별집회를 했는데 청년남녀三十여명이 출석했었다

△ 교회부인회연합회에서는 四月二十八九 양일간 京都에서 여교사 특별 연수회를 개최했다

△ 관서지방에서는 四月二十九일 京都에 있는 남쪽당에서 묘전에배를 하리라한다

合理主義의 병통을 고치자

病 痛

——復活節에際하여——

오늘의 시대는 물질 문명 문화의 발달로 온갖 것에 합리화를 최대의 편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합리주의는 오늘의 인간들의 지성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오늘에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하던것이후일에 비합리적인 것이 될수도 있고 오늘의 비합리적이란것이 후일에 합리적인 것으로서 증거될수도 있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이란 것이 그러하다. 오늘의 합리주의에 마취된 인간들에게는 예수 부활은 합리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다. 예수의 부활이란 것은 그 불합리성 때문에 기독교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까지 말하는 젊은 합리주의자들도 있다. 그들은 오늘의 편리한 합리적 교통기관의 자동차 기차 전차 기선 잠수함 헬리콥터 비행기등의 출현을 고대 인간들에게 설득시킬수 없었으리라는 사실을 이해 못할것인가?

예언자와 선견자와 고등한 지성인들은 그 시대에서부터 이단시를 받았으나 그들의 견해는 정당했고 이단시한 수 많은 그 시대의 합리주의자들은 무지했었다. 예언자와 선견자들은 그와 같은 역경에서도 용감하게 진리 증성을 계속하며 진리와 함께 살았었던 것이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합리주의 전염병에 걸려서 자기 신앙에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후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 큰 제자 제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는 열두 제자에게 그 후에는 오백군중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

이 말씀은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회람문화의 합리주의 도성인 고린도에 보낸 증언 기록에 써여져 있다. 신약성경서두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등도 문명 문화가

높았던때에 기록했으나 예수의 부활의 사실을 비합리적이라 고는 보지 않았다.

나의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에도 사실이었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거짓입니다. 우리의 죄에서의 구속이란사실은 예수의 부활에서 확실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란것도 예수의 부활하신 모양으로 부활을 받을것입니다. 여러 동포들의 장래도 예수의 부활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리주의 병통과 반기독교의 공산주의 병통은 한때의 유행병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 입각하기 바라코 권합니다.

高尚한活動을展開하자

少市民의恐怖는不必要한일이다

현대 문명 문화는편리하여져 가고 있으나 인간이 연 구 고안 발명 발견했놓고 그 인간 주인공이 제외되고 기계화 속에 빠져가고있다. 거기서 기대되는인간상이란 문제가 제기되어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상세계를 찾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회적 민족적 국가적 현실적 타개요구에 의한 환상을비저내려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에 의거하면서 현실에 예언자적존재로 활동을 전개하는 환상가진자들로 존재의의가 있는것이다. 예수의 출현과 활동이 역시그 러했었던 것이다.

예수의 출현과 그의활동은 그 시대와 사회와 민족에게 암흑과혼란과 곤란에서 새로운 환상을 갖고 일어서게 했었다. 성경은<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중 특히 뽑혀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교

청년들은 더욱더 한국인 기독교회청년들은 예수에게서 배워 진실해야할것 인데 그럴듯한 모습이없다. 그들은 너무나 현실 속에 빠져 비존없는생활이기 때문인줄 안다.

현대인들은 온갖 문제처리에 수많은 조직체의전문적위원회 다수제로해결의 길을 얻으려고만하고 있다. 우리는 혼란한 세대인으로 어려운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에게서 원대 고상한 환상을 발견하고 안드레가 시몬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힘찬 증언을한것(요 1:1~35절) 같이 우리의 활동을 전개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참다운 비존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민족 문화의특징을 의역 문화 속에 새로 건설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도 할수 있을것이다. 그것은 비록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 각민족 지역 사회에 까지 공헌하도록 하자

<李仁夏>

南北統一은 우리의 念願

어느사회가 幸福할 것인가 (3)

한 절 하

이상적 국토 통일에의 비전을 그리는 일은 그만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 南韓의 현실에로 눈을 돌려 보자! 이 南半部에 自由 韓國이 이룩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극히 불안정한 가운데 있고. 극히未發展 狀態에 있고. 극히 기형적인 상태에 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南韓社會는 해방 후 오늘날까지 국가 기

구를 통한 外國 援助로써 이룩하여 왔다. 그 치명적인 사실 때문에 우리 南韓 社會는 다분히 기형적 발전을 하여 왔다. 産業과經濟界의 건설은 더욱 그렇다. 財閥들은 자기의 근면과 奉仕와 저축으로 자라난것이 아니고 정부를 상대로 하여 뭉치돈을 떼내어 육성되어 왔다. 군사 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이 경향은 더욱 심하다. 中産階級은 沒落 과정에 있고 資本은 점점 더 小數 財閥들의 손에 집중되어 가고있다. 거기에다가 民族 經濟生活 전체를 따지고 본다면 이것은 형편 없는 赤字 경제 생활 형편하에 있다. 날마다 올라가는 물가가 이것을 말하고. 해마다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輸入 超過가 이를 나타내고. 막대한 액수의 外國 원조와 차관이 이를 말하고 있다. 그와 같은 형편하에서의 국토 통일이 自由 經濟 體制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망상에 불과할것이다. 經濟. 産業 分野에 있어서의 자유한국의 건설은 참으로 아직도 요원한 감이 있다.

꼭 같은 말을 우리들의 사회의 어느분야에 대해서도 다 말할 수가있다. 현재의 우리의 政界가 능히 자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형편하에 있는가? 한때 거리의 큰 건물들에 自由黨 간판이 나붙어 있더니 그 黨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오늘날 共和黨 天地가 되어 있다. 공화당이 지난 총선거에 있어서 有權者들의 극히 小數의 표방에 받지 못하였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또한 首都 서울에서의 투표율이 극히 低調하였다는 사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現 政界가 우리 민족의 生活에 뿌리를 박지 못하였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더우기 大韓民國 樹立 후에 한번이나 평화로운 政權 交替를 하여본 일이 있는가! 이렇듯이 한심하고 不安定한 政界가 국토 통일이란 과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主の御導きを感謝

母の証を聞いて

堺教会 崔 恵 津



私は今迄単純に聞き、そして読み過してきたところの出会いという言葉が自分が考える以上に重要な意味を持つものである事を最近教えられました。そして、はからず旧堺教会の開拓者の一人である李鳳朝長老の訪日を機会に母から入信経路を詳しく聞き、改めてその感を深くしたものです。

今からおよそ三十三年前、母が十四才の時に、ふとした事から旧堺教会の夜学に通う様になりました。夜学校では、李長老が韓国語を教えておりました。母は生れて始めて読み書きを習う嬉しさに熱心に夜学に通っている内に日曜学校にも誘われて出席する様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母は既にその時女工として働いており、日曜日にも出勤しなければならませんでした。そこで工場を休んで日曜学校に行っている事が家族の者に知れて、ひどく叱られ、その他の理由もあって、半年もたたない内に教会に行く事を全く差し止められてしまいました。

それから間もなく母は腸チフスにかかり生死の境をさまよったのです。当時、アルコール中毒の父と多勢の家族を抱え、その日の食物にも事欠く様な生活の中で医者も薬も無く、その上、伝染病とて誰も訪れる人の無い病床に李長老

が果物カゴを携えて見舞って下さいました。その事が十六年後に母をもう一度教会に引き戻す決定的な印象を母の心に刻みつけたのでした。教会に行きたいという思いが叶えられぬ儘、何年か過ぎ、やがて結婚し、五人の子供の親になった頃、母の上に一つの大きな苦しみを与えられました。その時どうしても李長老に会いたくなり、堺教会を探したのですが既に教会は無くなっておりました。戦時中堺教会員は殆んど散りぢりになり李長老も韓国に帰った後でした。然し李長老に会う事は出来なかったけれども、教会に行く事を決心し、韓国教会を探そうとしたのですが見つかる事が出来ませんでした。その時、近くの日本の信者の方から堺中央教会（現教団堺教会）の斎藤敏夫牧師を紹介してもらって訪ねていったところ、鶴橋に韓国教会がある事を聞き、ようやく大阪教会をたずね出したのです。そして、そこで信仰に導かれ、始めは反対していた祖母（父の母）もそして私達子供も教会に行く様になったのです。

それから二年程たった頃、当時西成教会に通っていた旧堺教会員の李成基執事が母の事を聞いて尋ねてこられ、堺教会を復活させようと二人で折りました。そして西

成教会の応援を得て堺協和町に伝道所が発足したので、やがて伝道所も発展して今の堺教会堂を建立する事が出来ました。献堂式を行う段になって堺教会の歴史を調べようとした時に、母は李長老の消息を知る事が出来ましたそこで早速、昔教えて戴いたお蔭でこうして文字を書く事も出来る様になりましたという手紙と共に献堂式の写真を送ったのです。一方、李長老は堺教会の事を寸時も忘れた事がなく、堺教会を捨てて

韓国にきた事を日夜苦しんでおられました。そこへ新しい堺教会が建てられている事を知って我家に今日、大さは喜びが来たという返事が母の許に寄せられました。そしてもう一度堺教会で礼拝をしたという李長老の願いが叶ってこの度、李長老を堺教会に招待する事が出来たのです。

そして更に、李長老と斎藤牧師が昔から大変親しい間柄であり、戦時中、堺教会の中心人物という理由で李長老が警察に拘引された時斎藤牧師が弁護士を依頼し、釈放に奔走して下さいたばかりか韓国に帰った後も欠かさずキリスト教大衆新聞を送り文通を続けていたのでした。又、李成基執事が斎藤牧師の教会の日曜学校で導かれた事や私が斎藤小百合先生にオルガンの手ほどきを受けて、ささやか乍らオルガニストとして奉仕させて戴いている事等々を考え合わせる時に、一口に偶然と云い切れぬ不思議な出会いと導きの御手を感じさせられると同時に、堺教会が私達の思いをはるかにこえた多くの人達に依って支えられている事をも知らされたのです。

（註崔恵津氏の母は堺教会金秀泰執事であられる。）

（写真は金秀泰・李鳳朝兩人）

るからだ」といっている。また警官が市刑務所の近くで、祈禱会をもとうとしていた5,600人の黒人と対決した時の出来事について、黒人が恐れずに立ってゆっくりと前進しつづけると催眠術にかけられたように警官は後退してその手には、ホースがたれ下っていたと彼は語った。

バーミシガムで勝利を勝ちえたおり、白人商人は黒人を事務員にやとい、食堂のカウンターを区別しないことに同意し、さらに差別排除のために人種委員会を設立した。しかしその直後、キングが泊っていたガストン・モーターに爆弾がかけられた。

× ×

1963年の夏までには、公民権法要求の闘争は激しくなった。ケネディー大統領はこの法案の提案者であった。その法の下では投票権公共施設（ホテル、食堂、理髪屋その他）国民教育および雇傭などにおける多くの不正を取り扱うようになっている。この法案は激しい70日間の議事妨害の後、今年7月ついに上院で成文化することが署名された。この法案の通過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のは一般にキリスト教会の支持によるものと認められている。この法律によって与えられた新しい保護により、公民権のために活動する団体は過去45カ月の間に空前の進歩をとげた最も顕著なことは連合団体会議（COFO）が全世界から参加した700余名の学生をミシシッピ州教育事業と公民権教育に従事させるのに動員した運動である。その年の夏の最も悲劇的なエピソードはミシシッピ州ネショバ郡のCOFOの3人の職員の殺害である日本でもアメリカ人宣教師による追悼会が、東京ユニオン教会でとりおこなわれた。21人の黒人教会の焼打ちを残忍なテロ行動およびその他の非法な反対運動にもか

かわらず、事態は有望な新しい段階にはいつていった。

日本のキリスト者は経済、教育活動を含む黒人援助長期計画「デルタ・ミニストリー」という米国NCCの新計画がミシシッピの中心部で立てられ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関心をもちたれることであろう。

指導者のロバート・スパイクはこの計画には全世界の教会から援助をうけ、それにたずさわる職員は、外国からもキリスト者の志願者を参加させたいと発表した。キング博士とキリスト者指導者の闘争としての新しいひとつの挑戦はキングの非暴力主義を否定する登録会員10000以上といわれる「黒いモスリン運動」である。

しかしキング博士とキリスト者指導者は以前にもまして今日まで多くの実を結んだ暴力に代わるものを保護し強化するように努力している。

日本にも過去2度ほど来訪された現在ユニオン神学校校長ジョン・ベネットは最近黒人の権利の主張は一種の新しい、まじめで現実的な社会の福音となってきたと公表した。

昨年ワシントン行進のとき、リンカーン記念堂の石段で講演しながらキング自身「私の白人の友人は彼らの行動を通して『我らの運命は彼らの運動に堅く結びつけられており、我らの自由は彼らの自由にしかと結びつい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と語った。彼の夢は4人の子供がいつの日にか皮膚の色によらず、人格によって評価される国に住むことだと語り、終わりに「私はいつの日にかすべての谷が高くうめられ、丘や山山が低くされ、でこぼこの地がならされ主の栄光があらわれ、全人類がともにそれをみ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ことだ」と結んだ。

（東京神学大学教授）

1965年度

夏期全国高等部修養会 案内

例年の如く、本年も次の如く高等部修養会が開かれますので、案内を致します。

記

日 時 8月3日（火）受付10時より } 三泊四日
8月6日（金）午後2時まで }
場 所 広島ユースホステル
広島市牛田町神田山（電話広島21局5343）
費 用 3000円（会費・宿・食費共）（交通費はプール）
主 題 ミ教会に生きるミ
聖 句 エペソ1:4 マタイ16:18 コリント前12:27
小題・教会の選び・教会の基礎・キリストのからだ
主 牧 鄭 寿 千 牧師（堺教会）
講師（主題） 洪 永 基 牧師（下関教会）
講師（一年） 金 徳 成 牧師（福岡教会）
（二年） 金 元 治 牧師（西成教会）
（三年） 羅 曾 男 先生（白頭学園）
特別講師 田 永 福 牧師（京都教会）
主 事 金 安 弘 先生 李 国 姫 先生
（ホステルへの交通機関）
広島駅前百貨店から広島郊外バスで深川経由可部又は戸坂行に乗り。牛田新町（ユース、ホステル前）で下車して下さい。（バス約7分乗車）（歩5分）

◎各種礼拝のテキストはガラテヤ書を使用します。ガラテヤ書を十分に読んで下さい。

ノーベル賞を受けたM・L・キング牧師

キングの次の大きな闘争はアラバマのバーミシガムにあった。1962年、黒人を召使以外には雇わないし、白人の店で食事を供さないという白人商人に対し、マイルスカレッジの学生がボイコットを起した。商売は40%も低下し、白人有力団体は、黒人の逮捕と、大集会禁止をもってボイコットに応酬した。これらの団体は、かの名うての警視總監「ブルドック」

コーナが統率者であった。彼が水道ホースと警察犬をつかったことは、世界各国と同様、日本でも新聞のトップを飾った。非暴力運動の志願者の募集は続けられ、多くの人々が応募し、志願者に次の事項を誓約させた。

1. キリストの教えと生命を日々黙想すること
2. 神は愛である。愛をもって歩み語ること

3. 全人類の自由のた、神に用いられるよう日々祈ること
4. 隣人と世界に常に奉仕することを願うこと

キング博士自身、1963年の受難日に逮捕され、監禁された。投獄についてキングは「私はいまだかつて、私ひとりきりで独房に監禁されたことはない。神は私といっしょに牢獄の入口でとまってしまう、獄中にもともにいてくださ



聖書

絶望の中での信仰

創世記22:6~19

西成教会 金元治 牧師

1. アブラハムは100才の時、妻サラが90才にして子供イサクが与えられた。(創21:5) 神様が与える約束をし、又アブラハムも切に望む事であったが100才にしてようやくその望みが実現された。神様は私達に必要なものを長く待たせるようであるけれども、必ず与えて下さる。それは私達に信仰的に必要な時である。それは人間は自分では出来ない事、神様に祈り求めるべきである。その時に神様は必ず道を示して下さる。100才や90才という年齢は子供が出来るには不可能な年齢である。だから神様は何もない祈りからイサクを与えたのと同じである。

2. アブラハムは神の約束があまりに待ち遠しいので女中のハガルとの間に子供イシマエルを生んだ。(創17:15) その事はアブラハムの家庭に非常に多くの悩みや家庭の不和をもたらした。(創21:9~11) そこでアブラハムはハガルとイシマエルを遠くの地に行かせた。(創21:14) その後アブラハム三人の家族は実に平安で楽しい生活を送る信仰のオアシスであった。その時に神の命令により独子イサクを神に捧げ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太10:37) →実に悲惨であった。しかし彼は神第一主義の信仰を守ってイサクを捧げた。(創22:9) これはゲツセマネのイエスの決心と同じである。(マルコ14:36) 彼はこの時にイサクが帰えされるとは夢にも思わなかった。

3. 神は死から人を甦らすのである。(ヘブル11:19) イエスは復活なされて私達をも復活の光榮

にあげからしめるのである。(ヨハネ3:18) イサクは完全に死ぬことから再び生にからせたのと同じである。私達は今日絶望の中での信仰というテーマで神の言を学んでいる。このアブラハムのイサクに対する行為は、イサクが再び戻されることは絶対にあり得ない。それこそ生きる望みのない絶望であった。この絶望は神への服従や敬けんな信仰の行為として認められ、絶対的な希望となって独子イサクはかえされた。それは私達が絶望と思う時に見えない姿で神様は私達にちゃんと備えて下さる。エホバエレである。(創22:14) だから私達は人間の考えで絶望でも必ず神は備えて下さるのだから信仰によって強くおしく生きましよう。(ルカ18:27)

に燃えるものを感じる事が有ると信ずる。福音書の八方破れも、復活者キリストに出会う時に、総て解決し、それ以上の生命、福音書の語ろうとする意味を私のものとする事が出来る。信仰の生命は具体的には、「奉仕のできなかった分を補おうとして、キリストのわざのために命をかけ、死ぬばかりになったのである」(ピリピ2:30) と言う面、具体化して行くものである。このあたりで、在日大韓基督教総会の各教会の総ての人々が、その意義と責任を確立する為にも、今さらと言う方もおられるかも知れませんが、「このいっさいの出来事」について語り論じ合ひましよう。

× × ×

関西青年部では、三月中は西成北部両教会で、四月中は堺、西宮

両教会で、青年の為の連続神学講座としての礼拝及び聖書研究をつづけた。(堺・西宮両教会は今まで終っておりません) 講師の一人として参加して見て、この青年達が信仰的に何かを、と求めている姿に、将来期待の出来るものがある。又私共信仰の導き手の責任として、こうして求めている青年達

に、彼らの言で、具体的に一つ一つを語りつづければなりますまい基本的な生活の構えと言うものに多くの問題のある私共の教会ではあるが、求める青年の存在する限りなほ希望がある。教会は、本当の意味でこの様な青年を大切にすべきである。

(寿)

偉大なる遺産

私の入信記

熊本教会 金得三 牧師



「あなたが、いだいてる偽りのない信仰を思い起しているこの信仰はまずあなたの祖母ロイスとあなたの母ユニケとに宿ったものであったが今あなたにも宿っているとわたしは確信している」(テモテへの第二の手紙 15)

パウロは愛する弟子テモテにこのような信仰があった事を記している。私もキリスト信仰に今も生きている両親の許に生まれ、養育された事を何よりも幸福だと思っている。遊び盛りの子供の頃を思い出すと教会に行くのがいやでたまらなかった。聖日の朝になると定めて母は「得三、教会に行くのですよ。」、夕べには父より「得三、教会に行ったら」と念を押される。今になって考えると、こんな有難い言葉はないと思うのだが当時の私には何時もいやな重圧感で受取られていた。父は故郷でも数少ない初代クリスチャンの一人である。当時はチョンマゲをしていた時代でイ・キ・ブンという牧師の伝道を受け改心してからは毎日のように市場めぐりをしながらトラクトを配り伝道して歩いたという。面白い事にはハサミをかくし持っていて男達のチョンマゲを強引に切りながら新しい信仰を説いたと云う。私も少年時代にな

ると信仰に懐疑を抱き両親の信仰に対してきびしい批判をするようになり教会を意図的にサボったりした。けれども親は人間として又信仰者として色々な面で不完全さを持っていたにしても私に貴い信仰の遺産を与えてくれたのだ。私は今この遺産を偉大だと認め本当に感謝している。

終戦直後のあの苦しい生の戦いにも負けずに強く生きて来たのも今日の私があるのも、ミ生命の信仰のおかげである。私は日本に金もうけをする為にやって来た。貧しい生活をする為にいたからのだから手が出るほど金がなかった。そのつもりで商業学校にも入った所が卒業するまでは自分のペースで進んだが卒業してからは主イエスにがっちり捕えられて方向を変えさせられてしまった。全く不思議な事ばかりである。私は私達の人生には神さまのみこころがある事を身をもって体験している。

パウロは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3:9に「わたしたちは神の同労者である。あなた方は神の畑であり、神の建物である」と云っている。私達一人一人の人生に神の大きな期待がよせられている事を常に思う。その意味でもっと信仰に徹してがんばりたいと思う。

そして親から受けた偉大な信仰の遺産を誇りつつ感謝して生きて行きたい。家には三人の娘がいる彼女等にも最善を尽してこの遺産を残してやりたい。ヨハネの第一の手紙5:4-5。をぜひ読んでもらいたい。

四月・カレンダー

イースターも終わったので、これに関係する諸行事も終って、各教会の牧師さんも、信者の方々も、ほっとして、さて春の野外礼拝はどこにするべか?と、眼を外に向けておられる頃だと思う。それはそれで意味もあるのですが、もう一度復活と言う事実を目を向けたい。福音書か、これでもか、これでもかと、イエスの神性をキリストの人性を証明しようとするのですが、何か割り切れぬものを感じるのが正直だと思う。この様な意味では福音書は説明不足と言えようし、八方破れだとも言える。主の直弟子すら主の復活と言う事実に出会いながら、それを信ずることが出来ずエマオエの道を急ぎつつ、この(十字架・復活)いっさい

いの出来事について互に語り合ひ論じ合っていたほど(ルカ24:13-32)に、人間にとっては、理解に困難なことである。当時の弟子達すら、信ずるのに時間を必要としたのに、今日私共キリスト者はあまりにもかんたん、信じそして信じておられますと、公言する信じて居ないと言う方が多いと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信じて居るといながら、その実は信じて居ない事実の問題を感じる。教会の信仰に生命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生命がない限り、それは形式的な信仰であっても、内容のともなわぬものである。ここで、じっくりと、復活の事実を語り合ひ論じ合ひて見たい。論じ合ひ語り合ひて居る時に、きっと心の

中に燃えるものを感じる事が有ると信ずる。福音書の八方破れも、復活者キリストに出会う時に、総て解決し、それ以上の生命、福音書の語ろうとする意味を私のものとする事が出来る。信仰の生命は具体的には、「奉仕のできなかった分を補おうとして、キリストのわざのために命をかけ、死ぬばかりになったのである」(ピリピ2:30) と言う面、具体化して行くものである。このあたりで、在日大韓基督教総会の各教会の総ての人々が、その意義と責任を確立する為にも、今さらと言う方もおられるかも知れませんが、「このいっさいの出来事」について語り論じ合ひましよう。

× × ×

関西青年部では、三月中は西成北部両教会で、四月中は堺、西宮

に燃えるものを感じる事が有ると信ずる。福音書の八方破れも、復活者キリストに出会う時に、総て解決し、それ以上の生命、福音書の語ろうとする意味を私のものとする事が出来る。信仰の生命は具体的には、「奉仕のできなかった分を補おうとして、キリストのわざのために命をかけ、死ぬばかりになったのである」(ピリピ2:30) と言う面、具体化して行くものである。このあたりで、在日大韓基督教総会の各教会の総ての人々が、その意義と責任を確立する為にも、今さらと言う方もおられるかも知れませんが、「このいっさいの出来事」について語り論じ合ひましよう。

新しい聖書が
できます!



信頼できる

新改訳聖書

〈新約〉

新改訳聖書刊行の四つの理由

1. 世界じゅうのおもな言語にはみな二つ以上の訳の聖書があります。

聖書の原典の持つ豊富な意味を、一つの翻訳だけで表わすことは困難だからです。

2. 世界じゅうの言語は絶えず変化しています。ことに戦後の日本語においてそのことが言えます。あとに続く世代に、読みやすい聖書を刊行する必要があるからです。

3. 最近急速に進歩している原典研究の成果を、日本語聖書の翻訳にも十分採り入れなければならぬからです。

4. 「聖書は全部神のみことばである」という確信に立ち、しかも十分な訓練を受けた福音的聖書学者による翻訳が緊急に必要とされているからです。

◎ 新改訳聖書刊行の目的は、神から与えられた原典の正確な意味を、できるだけ忠実に、しかも明確に伝えることにあります。

◎ 新約は九月発行予定、

東京都新宿区信濃町六番地
日本聖書刊行会 発行
いのちのことは社 発売